

최근 한국청소년개발연구원 이 한·중·일 3국의 중·고교 2학년과 대학생 29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일본청소년들이 '전쟁이 나면 싸우겠다'는 응답률은 41.1%인데 반해 한국은 10.2%로 가장 낮았다. 더구나 '외국으로 출국하겠다'는 대답은 한국이 10.4%로 일본 2.3%와 중국 1.7%보다 월등히 높았다는 놀라울 따름이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인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해 나의 존재의 의미를 실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더불어 사는 삶은 인간이 지향해야 할 형식적 규범이나 제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더불어 사는 삶은 인간의 존엄기반이며, 정치와 이념, 세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근본적 삶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사는 삶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에 대한 자각에 기초하고 있다. 관계성에 대한 자각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존재는 나와 필연적 연관이 있으며, 그러한 다른 사람의 존재가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간은 누구나 관계를 통해 살아가고 있고, 관계를 통해서 인격체로 성장해 갈 수 있다. 공동체내에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역할의 의미도 실제로는 관계성의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불자 세상보기**

고진호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

**‘자기중심’의 위험한 미래**

한 개인이 자아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부모가 되기도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관계성속에서 발생하며, 자식 없는 부모, 학생 없는 교사, 노동자 없는 고용주를 생각할 수 없는 것도 바로 관계성의 이치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의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일부 청소년들의 자기중심적 태도나 이기주의적 가치관도 따지고 보면,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에 대한 자각의 부족에서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먼저 청소년들의 태도나 가치관을 문제 삼기 이전에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삶의 행태를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현대사회는 과거 다른 사람의 협동과 역할 분담이 없이는 불가능했던 노동과 레저 등과 같은 모든 일상사들이 이제는 얼마든지 나 홀로서도 가능하다는 오도된 의식을 심어주었다. 또한 물질만능주의적 사고는 더불어 사는 삶의 체계를 통해서만 나눌 수 있는 모든 인간적 가치를 물질로 환원, 대체, 구입이 가능하다는 그릇된 가치관을 일깨워 줬다.

가정에서조차 생활의 모든 우선순위가 자녀인 청소년들 중심으로 맞추어져 있고, 학교에서

또한 청소년들에게 협동 보다는 경쟁을 내세우는 성격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현실이다.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중요성과 더불어 사는 삶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실로 공허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교육의 실천은 이제 단순히 학교교육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요청이 되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교육은 너로 인해 내가 잘 되고, 나로 인해 너도 잘 되고, 모두가 잘 되는 인생의 '윈 윈 게임(WIN-WIN GAME)'을 위한 삶의 전략이자 지혜를 배우는 장이다.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삶이 흔히 개인의 존재성 보다는 사회 혹은 공동체만이 강조되는 삶의 형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더불어 사는 삶은 개인의 존재성이 함몰되는 아니라, 개개인의 관계성이 강조되는 삶을 지향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관계성에 대한 자각이 선행된다면,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 또한 증진될 것으로 생각한다. 나아가서 관계성에 대한 자각은 더불어 사는 삶의 지혜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근년에 조계종 중앙신도회를 중심으로 주로 서울 지역에서 이루어지던 재가논쟁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광주 원각사에서는 8월 11일부터 '재가불자 신행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로 오는 9월 22일까지 매주 금요일, 열린 논쟁이 열린다. 일반적으로 듣기만 하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형태의 법회에서 벗어나, 청중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불교를 역동적인 실천의 장으로 이끌어 내려가는 시도가 신선하다.

또한 부산의 현대불교연구원에서는 8월 23일부터 11월 15일까지 매주 수요일, 재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강 형식의 논쟁을 통해 불교의 다양한 사상을 보다 심도있고 체계적으로 풀어낼 계획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불교대학 및 불교관련 학회의 꾸준한 발전,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토론문화의 활성화에 힘입

**‘논쟁’ 열기 전국으로 ...**

은 바 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부처님의 '문답을 통한 대화'의 교화 방식에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뜻 깊은 재가논쟁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선 다음 두 가지 사항에 유념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우선 참여대중의 문제다. 우리는 대개 어떤 행사든 기금적 많은 사람이 참여해야 성공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논쟁의 성격과 취지를 고려한다면, 너무나 많은 대중이 참여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본다.

참여대중을 선별하여 적절한 규모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 대신 논쟁에서 주고받은 내용들은 정확하고 상세하게 정리하여 대중매체를 통해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논주와 강사가 많은 경우, 불교의 특정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밝힐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첨예한 문제에 대해서는 논주들끼리 먼저 토론을 하여 어느 정도 의견 조정을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것이다. 아무튼 지방의 재가논쟁 소식에 기복불교의 흐름을 지식불교의 흐름으로 바꾸어 불교의 진면목을 회복하고 포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 박경준(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부끄러운 세계 1위

욕심은 불이나 칼이나 독이므로 쾌락을 구해서는 안된다. 온갖 욕심은 마치 불이 맹렬히 타는 것 같다. <정법경처장>

우리나라 국민들은 유달리 1등에 집착한다. 1등이라는 가치를 높이 사기에 뭐든지 1등만 하면 다 해결된다. 부모들도 역시 마찬가지. 자녀들의 학업성적이 1등이라고 하면 아마 아이가 뭘 요구해도 다 들어줄 자세가 되어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1등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것 같다. 부처님은 <화엄경>에서 "인간의 욕망은 불가품 허깨비 야생마 물 속 에 비친 달 뜬 뜬구름처럼 덧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세계 1위가 되고자 연연하는 것도 결국은 욕망에서 비롯된다.

휴대폰 시장 성장률, PDP 생산 보급, 조선사업, 반도체 메모리 D램 시장 점유율, 디지털기회지수(DOI: Digital Opportunity Index), 대한민국 전자정부, 국제항공수송실적, 온라인게임 등으로 자랑스러운 세계 1위를 기록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이면에는 자살증가율, 환경제 남용, 성인 남성 흡연율, 제왕절개, 낙태율, 해외입양, 이혼증가율 세계 1위 라는 부끄러운 1위 기록들이 남아있다.

최근 미국의 인구조회국이 발표한 2006년 세계인구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평균 출산율은 1.1명으로 대 만과 함께 세계 최고의 저출산국가로 기록되기도 했다. 인간의 욕망은 그 적정선을 모른다. 그렇기에 긍정적인 측면이건 부정적인 측면이건 욕망의 부산물은 여러 방면으로 생활에 직격탄을 날린다.

"욕망은 애착에 의해 생겨나며 우리의 생활은 그 욕망에 기초해 행해진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겨보자. 1위가 좋지만 그 전에 공생하며 사는 삶·화합하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할 때다. 이제 부끄러운 세계 1위의 오명은 벗어나야 하지 않겠는가.

■ 강지연(해부부 기자)

**제언** 어린이 청소년 범죄 활성화를 위해

요즘 조계종 포교원 주최로 어린이와 청소년포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세속불자들의 육성을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새로운 포교방법과 운영상의 묘안을 구상하고 있지만, 당장 '대화살을 뺏는 작입'에는 소홀한 점이 보이는 것 같다.

어린이와 청소년 포교현장에서 범죄화 동을 하고 있는 지도자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사찰법회에 참석하고 있는 학생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나 역시 타종교에 비해 불교계의 청소년 포교에 대한 관심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나마 오랜 세월 어린이와 청소년 범죄를 진행 해온 재가불자들이 있었기에 이나마 유지된 것이 아닌가 싶다.

혹자는 범죄를 막아 운영할 만한 간사가 없다거나, 아이들이 없어서 범죄를 운영할 수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활동하는 이들은 교사 양성 보다 시급한 것이 사찰 주지사님들의 어린이·청소년법회를 운영하겠다는 의지와 실천이라는 데 고개를 끄덕인다. 범죄를 운영할 원력을 세운 주지사님이 있다면 그 절은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단연하는 이유는 주지사님의 의지가 어린이·청소년 법회를 운영하고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 단연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얼마전 여삼동에 있는 보리사 주지사

님으로부터 어린이법회를 만들고 싶으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포교사단 어린이팀은 흔쾌히 응낙을 하고 아이들을 모집하기 위해 절 부근 초등학교를 몇 차례 찾아가서 홍보물과 과자를 나누어 주며 아이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받아냈다. 그리고 아이들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어린이법회를 만들려는 의도를 전한 설명하고 아이들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곳을 정성껏 설명했다.

결국 보리사 어린이법회는 창립했다. 창립제가 열린 날, 예상 밖에도 많은 어린이들이 모여 들었다. 주지사님과 우리 포교사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진정으로 어린 불자들을 포교하고 육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재지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간사의 능력이 탁월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주지사님의 원력과 신도들의 관심, 법사와 간사들의 재능과 노력이 전부 필요하다.

주위에서 찾아보면 준비된 인재들이 많다. 중앙승가대 보육교사 과정을 이수한 이들도 많고, 계절마다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와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맹회에서 진행하는 지도자연수회를 이수한 이들도 있다. 현재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능력자들을 찾아서 현장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되는 일이다.

세속불자 육성의 방법을 각 사찰 법회로 국한해서는 안된다. 중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활동 수업시간(CA)과 대학 불교학생회도 효과적인 포교수단이다. 또한 병원 마다 법당을 설치하여 입원환자나 외래환자들을 위한 어린이·청소년 쉼터를 마련하는 일도 필요하다.

우리 불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 이미 타 종교인들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우리 젊은 불자들이 마음 놓고 부처님에 대하여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만큼이나 있을까? 아이들은 학교에서조차 '불자'라는 말을 제대로 못한다. 이 얼마나 기막힌 일인가?

몇 해 전 한 불교여성단체에서 각종 프로그램과 연간계획표를 작성해 여러 사찰을 찾아다니며 놀이방 시설을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의사를 타진한 적이 있다. 반응은 냉담했다. 가는 곳마다 재정의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것이 불교계의 현실이다.

저러나는 세속 불자들을 키워야 미래 불교를 장담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데도 대부분의 사찰들은 당장의 현안에만 관심을 갖는다. 하지만 이제라도 각 사찰마다 놀이방 시설을 갖추고 어린이들부터 부처님을 접하며 자랄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한 어린이불자 지도자들이 포교현장에서 편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남숙(조계종 포교사· 불교여성개발원 상임위원)

**‘연대’ 민평** 심민섭

종교간 화합 '강원용목사는 가는데...'

공직자의 종교편향

이 시대의 과물은 남아있고...

**경주 도심속 자연경관이 수려한 '비구니선원' 분양안내**

경주시 충효동 선도산에 위치한 금선사 여래선원은 소나무 숲이 어우러져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비구니 스님의 수행처를 성황리에 분양합니다.

경주시내, 동국대병원, 경부고속철도, 고속버스 5분거리, 교통의 요지이자 편안한 지리적 여건으로 생활의 편리함은 물론 개별 단독(난방) 축열식 심야온돌·온수 등 불편함이 없는 최적의 수행처를 제공합니다.

**제3차 여래선원 보현동 분양내역**

(1차 금선선원 30세대, 2차 여래선원 문수동 24세대 완전분양 완료되었음)

**성황리 분양중**

- 28평형 - 2세대
- 22.2평형 - 6세대
- 18평형 - 6세대
- 14평형 - 8세대

총 22세대 **평당분양가 (390만원)**  
(8월 30일까지 완납시에는 360만원으로 할인 분양함)

※ 먼저 분양금 내신 스님 방부터 모델하우스를 꾸밀 계획이오니 뜻이 있으신 비구니 스님께서는 연락하여 주십시오.

경북 경주시 충효동 450번지 • 문의전화 : 054)772-7171 / 011-538-3879

**대한불교 조계종 선도산 금선사 여래선원 주지 휴정 합장**